"우주 전쟁 '스타워즈' 머지않았다"

미국 이어 러시아 위성 요격 성공
텔레그래프 "새 '진주만'은 우주"
자갈 크기 우주쓰레기도 50만개

러시아가 15일(현지시간) 소련 시절 인공위성을 격추하면서 영화에서나 보던 '스타워즈'(우주전쟁)의 가능성이 성큼 현실로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6일 "우주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새로운 '진주만'은 해양·공중이 아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주 영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이미 크게 부각된 만큼 각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상대국의 인공위성 등 우주 시설물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지구 밖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요격하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15일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 지구 저궤도(고도 2000㎞)에 있던 첩보위성을 정확히 격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 가능한 파편만 1500개가 우주로 흩어졌고 그 파편이 총알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공상과학 영화 '그래비티'의 현실판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나온다.

이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주를 무기로 활용하지 않겠다던 러시아의 말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평화적인 우주 활동에 위협을 가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가장 약하게 표현해도 위선"이라며 미국 측도 우주에 대한 군사 목적의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도 지난 2008년 오작동·지구 추락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자국의 첩보 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한 적 있다. 그 한 해 전에는 중국이 지상에서 위성 요격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고, 2019년 3월에는 인도도 고속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었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거나 고속·장거리 통신, 각종 무기의 정확도 향상 등에 인공위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 위성을 활용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같은 추세가 가팔라졌다.

이 시기 지상의 탱크나 공중의 전투기에 널리 GPS가 탑재되기 시작했다. 순항 미사일에도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입력되자 정확도가 센티미터(㎝) 단위로 정교해졌다. 각국 군대는 갈수록 우주 공간을 더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을 포함, 10여개국이 도입한 F-35 라이트닝2 전투기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한다.

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위성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러시아는 발트해 인근에서 수시로 GPS 방해 전파를 쏘고 있다. 대부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훈련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의 GPS 통신을 방해하는 전파를 쐈다. 심지어 테러 단체도 위성 전파방해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보고도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꿈꾸던 '유인 우주선'의 꿈을 실현하는 걸 보면 (영화 스타워즈는) 시기의 문제지 가능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러시아 위성 요격 실험으로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쓰레기는 9600t이 넘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구 주위 우주쓰레기 중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소프트볼보다 큰 것은 2만 6000개가 넘는다. 우주선을 훼손할 수 있는 자갈 크기 이상은 50만 개가 넘고 우주복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모래 알갱이 굵기는 1억 개가 넘는다. 이번 러시아의 위성요격 실험으로 발생한 1500개 이상의 우주쓰레기 조각도 고도 440~520㎞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미얀마 억류 美 언론인 펜스터 6개월 만에 귀국 미얀마에 억류됐던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가 16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인 펜스터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협상을 벌인 후 전날 전격 석방됐다. /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 물난리로 철도·도로 폐쇄

산사태로 인명 피해도 발생

캐나다 서부를 강타한 홍수로 도로와 철도 운영이 멈추면서 인명 피해가 나고, 곡물과 석탄 등 물류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4~15일께 내린 비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캐나다 최대 항구인 밴쿠버항으로 통하는 모든 철도 연결이 끊기고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다.

밴쿠버항은 화물 톤수 기준 북미에서 4번째로 큰 항구로, 일평균 5억5000만 캐나다달러(약 5177억원) 상당의 화물이 오간다.

캐나다는 현재 수확기 이후 곡물을 항구로 운송하기 위해 분주한 시기인데, 이번 홍수로 캐나다가 수출하는 밀과 유채 물류 상당부분이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또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관이 운영을 멈췄고, 구리와 석탄 채굴업체, 탄산칼륨 수출업체들도 이번 홍수로 물류 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다.

현지 매체 C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로 안 그래도 빡빡한 상태였던 물류망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출은 물론 물품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낙농업자들은 사료 비축분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CBC는 전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한 달 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20cm 정도 비가 내려 남부지역에선 15만 가구 이상이 대피했다.

산사태로 토사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1명이 숨졌고,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275명가량이 고립됐다가 헬리콥터로 구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동유럽 혼란, 푸틴에 호재
폴란드 사태 등 입지 강화"

동유럽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알고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각국 외교 전문가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불거진 동유럽 혼란이 실제로는 영토 분쟁이 아니며, 푸틴 대통령이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쪽 국경에 병력 9만명을 배치하며 서방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는 '행복한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한 분석가는 현 상황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당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합법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서방에 말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유럽 외교관과 당국자들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진퇴양난 상황을 촉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CNN은 짚었다.

푸틴 대통령은 병력을 배치하면 서방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이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이렇게 되면 서방 지도자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폴란드 국경경비대에돌 던지는 중동 난민 폴란드와 접경한 벨라루스 그로드노에서 16일(현지시간) 중동 출신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경비대와 충돌한 가운데 한 난민 남성이 돌을 던지고 있다. 전쟁과 빈곤을 피해 중동에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로 건너온 이들 난민은 새 삶을 찾아 폴란드를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16세 소녀 "400명으로부터 성폭행"

용의자에 경찰·미성년자 포함

인도 서부지역에서 16세 소녀가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마하라슈트라주 비드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8명의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3살 때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33세 남성과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성폭행당한 뒤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인도 아동복지위원회(CWC)는 성명을 내고 피해 소녀는 남성 약 400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목된 가해 남성 가운데는 경찰관 2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강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수를 확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들 가운데 적어도 25명을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인권 운동가인 요기타 바야나 씨는 이번 사건을 두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례"라며 "우리는 모든 범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도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은 2만8000건을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합뉴스

피쉬데이㈜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FISHDAY 피쉬데이 싱싱한 약속 피쉬데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탑차 납품/배송) 1톤 냉동탑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